

2014년 3분기(27호)

태풍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올 여름 너구리부터 간무리까지 태풍의 영향으로 도내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제12호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한라산 뒷세오름에는 하룻동안 1182mm의 일강수량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강수량을 나타냈다. 제주지방기상청에서는 태풍의 영향이 예상될 때 지역기상담당관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기상서비스를 신속하게 수행하였고, 그 중 방재기관 재해담당자와의 '1:1 맞춤형방재기상정보'제공은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제주지방기상청은 선제적인 기상정보제공을 통해 지역맞춤형 방재업무를 위한 자문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고윤화 기상청장 방문

지난 8월 27일 고윤화 기상청장이 제주지방기상청을 방문했다. 제주청의 현안사항을 보고 받은 후 기상정보서비스에 대해 강조하였고, 특히 신속 청사 공사현장을 시찰하고 공사진행 사항을 점검 하면서 안전관리에 항상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였다.



여직원과 간담회 개최

제주지방기상청은 7월 14일 제주청 구성원 중 비교적 낮은(23%) 인원 비중을 차지하는 여직원과 청장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직원의 애로사항 및 여직원 근무환경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발한 대화의 시간이 되었으며, 기관장의 열린 대화창구 운영을 통해 소통하는 문화 정착 및 활발한 조직문화 조성에 좋은 계기가 되었다.



가을철 언론 브리핑 및 기후전망 설명회 개최

제주지방기상청은 국립기상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8월 22일 제주칼호텔에서 지역 언론사를 대상으로 가을철 언론 브리핑 및 기후전망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름철 기후특성과 특이기상에 대해 설명하고 가을철 기후전망에 대한 예측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기후정보의 전달하여 기상재해 예방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기후관련 예측정보 생산 및 제공을 통해 지역 기후환경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에 기여하고자 실시되었다.



전문가 초청 강연

제주지방기상청은 7월 21일 정부3.0 전문가사인 수원대학교 조영임 교수를 초청하여 정부3.0 정책을 확산·전파하고, 주요 추진전략의 내재화를 통해 분야별 구현방안 마련·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청특강'을 운영하였다. 이번 정부3.0 전문가 초청 교육을 통해 새 정부의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에 대한 개념이해, 인식제고 및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시간이 되었다. 또 같은 날, 제주지역사업평가원 김경보 실장을 모시고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한 핵심 산업인 신재생 풍력발전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기상정보를 활용한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기상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2014년 3분기(27호)

기상 1호를 이용한 해양 기상관측환경 및 기상특성 조사

제주지방기상청은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남해서부 먼바다와 제주도남쪽먼바다의 기상특성 조사를 위한 기상1호 승선관측을 실시하였다. 해양관측장비의 설치환경을 직접 관찰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였고, 풍향과 풍속에 따른 파고의 차이를 느끼며 풍계에 따른 풍속과 파고예보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해상 기상특성 조사를 통해 해상 예보와 특보의 탄력적인 운영과 함께 맞춤형 해상기상정보 제공으로 국민만족도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상관측표준화 지역 간담회 개최

지난 8월 28일, 제주지방기상청은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기술지도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공동활용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국가기상관측 표준화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관기관 표준화담당자 등 26명이 참석하였고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 내용 및 관측장비 점검업무 절차 등의 설명과 함께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 졌다.



지역기상기후서비스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제주지방기상청은 9월 29일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실에서 제주도내 산업계 종사자와 지역 유관기관 전문가들 7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 기상·기후서비스 강화를 위한 협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간담회는 제주지역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산업·경제현장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 발굴과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후정보서비스 활용방안에 대한 열띤 토의의 함께 날씨경영인증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향후 지역기상·기후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 강화 기반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 노하우 공유의 장 운영

제주지방기상청은 내부 직원간 벽 허물기의 일환으로 업무 노하우 공유의 장을 마련하였다. 부서와 소속 기상대와의 일대일 만남의 기회를 통해 현안과제를 공유하는 등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힐링(healing)의 시간을 가졌다. KBS제주방송 신청사와 다음커뮤니케이션 견학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특히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정보가 어떻게 방송이 되는지 직접 체험을 하며 그 과정과 노력에 대해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유연하고 자유로운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수평·수직적 소통 활성화 및 직원들의 노하우 공유를 통한 지식습득을 유도하여 직장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4년 3분기(27호)

「기상교육 책임자과정」 운영

제주지방기상청은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간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내 초·중·고교 교장 및 교감 선생님 13명을 대상으로 기상교육 책임자 과정을 운영하였다. 본 과정은 2011년부터 제주지역 교육계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지역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다채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 93명의 교장·교감 선생님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향후 교육리더들의 기상·기후분야 전문지식의 학교현장 파급으로 기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기상청의 기후업무 역할 강화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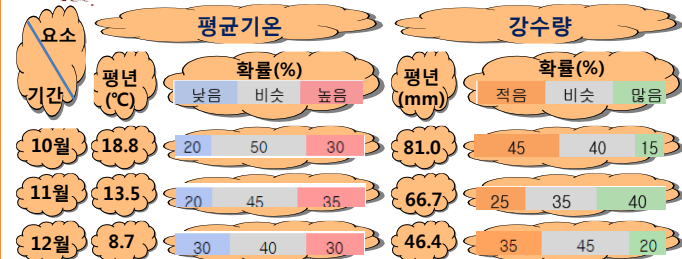


추석명절 나눔문화 실천

제주지방기상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제주 몽생이 그룹홈 등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또 자매결연 마을인 알토산마을에서 추천해 주신 할머니를 방문해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정을 나누고 돌아왔다.



3개월 기상전망



“뽕대! 하늘사랑 어린이 홍보대사” 와 함께하는 기상기후 홍보체험관 운영

제주지방기상청은 지난 9월 21일 어린이 홍보대사와 함께 제11회 방선문축제 기상기후 홍보체험관을 운영하였다. 이번 체험관에서는 기상위성과 풍향풍속계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활동과 이벤트가 열렸고,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기상 및 지역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확산의 장을 마련하는 등 하늘사랑 어린이 홍보대사를 통해 도민과의 소통강화 등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었다.



2014년도 합동 소방훈련 실시

제주지방기상청에서는 9월 26일 항만 119센터 참관 하에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부터 진압까지 자위소방대원들의 대처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초기 소화 훈련, 인원대피 및 구호 활동, 주요 물자와 서류 반출 훈련 등이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



제주기상과학홍보관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제주지방기상청은 9월24일 「제주기상과학홍보관 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에 대한 발전 방향 등에 관해 직원들과의 토의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의에서는 3차원 가시와 시스템의 운영방안, 그래픽 패널 전시물 구성 및 설치 등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 졌고 향후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관람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첨단 미디어 기술을 적용한 기상과학 홍보관을 구축할 예정이다.

2014년 3분기(2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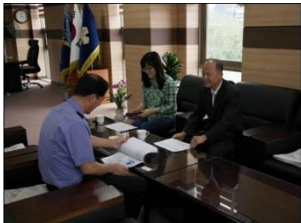
하늘의 마음을 담은 기상기후사진전 개최

제주지방기상청은 여름 휴가철 제주도를 찾는 피서객 및 도민을 위하여 「하늘의 마음을 담은」 기상기후사진전을 8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10일 동안 절물 자연휴양림 내 실내 삼림욕 체험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사진전에는 2014년 기상청 사진공모 입상작 40점과 함께 기후변화 홍보 판넬이 전시되었고 포토존을 운영하여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8월 7일에는 절물 잔디광장에서 「제주사랑! 하늘사랑! 어울림 마당 이벤트」를 개최하여 지역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다채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 하였고, 삼림욕과 함께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다.



기상대는 지금....서귀포기상대

서귀포기상대는 지난 8월 20일 서귀포 무지개지역아동센터에서 2014학년도 여름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약 20여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기상관측 및 예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의와 함께 천리안위성 만들기 체험을 통해서 지역 아동들에게 다양한 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서귀포기상대는 지역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위해 적극적인 소통활동에 임했다. 7월 23일,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방문을 시작으로 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소방서 등을 방문하여 지역방재기상업무 협조체계의 공백을 최소화 하고 향후 태풍 등 위험기상 예사 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서귀포 지역의 재해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지난 8월 4일에는 서귀포시장이 기상대를 직접 방문하여 태풍 상황대책회의 시 상세한 태풍 브리핑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다.



기상대는 지금....고산기상대

고산기상대는 8월 12일과 22일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 기상교육을 실시하였다. 농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는 태풍 이동 경로에 따른 제주지역의 날씨 특성 및 예상 피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되었다. 평소 기상청업무에 대해 궁금했던 점과 기상정보를 활용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 질문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8월29일 「2014년 지역기상담당관 업무 협의회」가 고산기상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관내 유관기관 방재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가을철 날씨 전망과 방재기상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제공되는 기상서비스에 대한 방재담당실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었다.



기상대는 지금....성산기상대

7월 16일 신성여자고등학교 과학동아리 학생 24명이 성산기상대를 방문하였다. 학생들은 기상대의 업무와 관측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기상에 관한 관심을 보였다. 또, 지난 7월 19일에는 신산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 11명이 성산기상대를 방문하여 날씨와 관측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위성 만들기 체험을 통해 천리안 위성의 역할에 대해 다시 배우는 자리가 되었고 위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9월 3일 성산기상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신산초등학교 학생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계속해서 꿈을 향해 나아가길 친구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기를 기대해 본다.